

# 건축계의 최우선 과제와 협회의 노력

## Priority Subject of Architectural Profession and Effort of KIRA



강성익 | Kang, Sung Ik, KIRA President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학과
- (주)한라 종합건축사사무소
- 홍익대학교 대학원
-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역임

올여름 유난히도 긴 장마와 거듭되는 집중호우로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요즘 글로벌 신용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둔화, 전세가 및 물가 급등 등 경제여건이 만만치 않고, 회원분들 모두가 사무소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협회에 기대하는 바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회는 더 많은 부담과 책임감을 갖고 건축사 생존권 확보를 위해 쉽 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아 이렇게 지면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벌써 취임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 6월에는 매년 본협회 임원, 위원장, 전국 시·도건축사회 회장 등이 참석하던 협회 발전워크숍에 약 120개 지역건축사회 회장들도 참석토록 하여 일선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회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워크숍을 계기로 회원들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시·도건축사회는 물론 지역 건축사회까지도 협회의 주요활동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전 회원님들께 그간의 협회 제반활동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취임 후 가장 먼저 국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국가지도자급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대통령, 총리, 장관, 국가건축 정책위원장, 국회의원 등을 직접 만나 건축사업계의 현실과 건축현안을 논의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과 해법 등을 제시 하였고, 건축산업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력히 건의하였습니다. 제가 올해 초 '협회가 힘 있는 단체로 거듭나 회원들의 울타

리가 되겠다'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협회는 건축사의 생존권과 업역확대, 건축사의 위상제고 등에 대한 사안들을 최우선 중점과제로 정하고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축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건축사의 업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1.8.30 국회에서 임법 발의하여 해당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으며, 아울러 건축을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가가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및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정안, 그리고 건축 기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이미 발의가 되었거나 임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제도 개선사안은 정부, 국회와의 수많은 협의가 필요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될 수 있는 장기전을 요합니다. 또 건축계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처방은 법·제도 개선노력과 함께 시장 확대, 건축교육, 국민인식 계몽, 건축계 화합과 협회역량 강화 등이 동시에 업그레이드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차후에 건축계와 건축사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지름길임을 이해해주시고, 협회를 믿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 4월 29일에는 그간 정부와 협의해온 건축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건축사법은 2012년 5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앞으로는 건축사자격등록제도에 맞춰 건축사는 3년마다 자격을 갱신하고, 지속적으로 실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축사등록업무도 협회에서 수탁해 실무수련, 시험, 자격등록, 실무교육, 갱신등록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대한 준비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 하에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과 구조계산 프로그램의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10.10월 내진설계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와 언론보도(KBS : '10.10.4/'11.4.7)로 인해 국무총리실 합동조사단의 실태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국민의 안전 확보 등을 이유로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우리 건축사에게 결코 유리하게 전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구조기술사들의 업역침해 방지와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구조계산 프로그램의 개발·보급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이며, 국토해양부 등에도 이를 근거로 건축사의 업역이 침해되지 않도록 설득하고 프로그램 시연 과정에도 직접 참여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개발완료 시점에서 협회와 사전에 상의 없이 개발업체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정하여 홍보하게 된 것이고, 협회는 이에 강력 항의하고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한 것임을 알려드리며, 이 과정에서 회원 여러분께 다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속히 프로그램을 구매하려는 회원도 많고, 협회 차원에서 구매조건 등을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으나, 정부의 정책방향과 구조기술사와의 업역문제 대처, 구매를 희망하는 회원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프로그램 개발을 원점으로 다시 돌릴 수는 없었으며, 특히 더 이상의 시간을 지체할 경우 구매를 희망하는 회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협의를 진행하여 미흡하나마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으로 협의를 완료했던 사안임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며 우수건축자재 발굴과 건축산업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한국건축산업대전(10월27일~10월30일) 개최, 한국건축문화대상(10월27일~10월30일), 서울국제건축영화제(10월20일~10월24일)는 오는 10월에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행사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건축사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건축이 사

회와 결합돼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국가의 녹색성장 기반구축과 관련하여 친환경건축설계아카데미는 「미래 친환경 저에너지 건축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정부로부터 수탁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정규과정(7기)과 특별과정(3기)으로 구분 시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건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건축사는 물론 건축계 종사자 모두에게 친환경 녹색건축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제사업으로는, 2017년 UIA세계건축대회 유치를 범건축계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세계 123개국, 130만 건축사를 대표하는 UIA 세계건축대회는 대한민국의 건축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대단히 유익한 기회입니다. 대한민국 건축의 브랜드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으며, 한국건축의 글로벌화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회 유치결과는 9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열리는 '2011 UIA 동경 세계건축대회'기간 중에 결정됩니다. UIA 대회 유치는 과거 10여 년 전부터 범 건축계에서 추진해오던 사안으로, 특히 2017 서울 세계건축대회는 서울특별시와 함께 전 건축단체가 합심하여 추진하는 국가적인 사업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회가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축문화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건축사공제조합이 지난 1월 출범하여 현재 1,200여 회원사가 가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미 건축사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모든 건축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조합에 가입하도록 되었고, 모든 건축물의 설계·감리계약 또는 건축허가시 건축사의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가입 여부를 관계부처 및 모든 지자체, 국가기관에서 철저히 확인하도록 국토해양부에서 공문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건축사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건축사의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건강에 유의 하시기 바라며,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